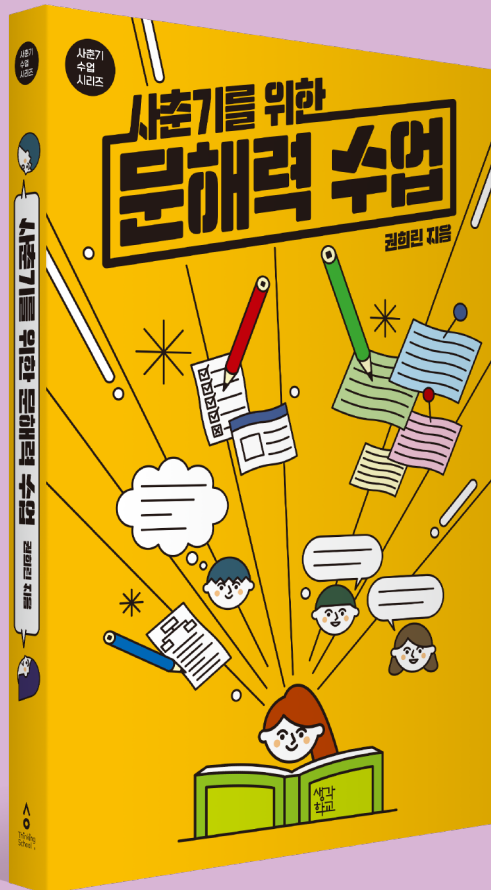


사춘기
수업
시리즈

사춘기를 위한 문해력 수업

청소년 독서 지도안



만든 이 : 장충고등학교 사서 교사 권희린

《사춘기를 위한 문해력 수업》 청소년 독서 지도안은 생각정원 출판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3347932>)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책 소개

너 정말 이지적(easy=X, 理智的=O)이다!

뭐?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

개진짜 고지식(high knowledge=X, 융통성 없다=O)하더라?

그 친구가 좀 똑똑하긴 해!

이 작품의 가제(가젯과의 하나=X, 假題=O)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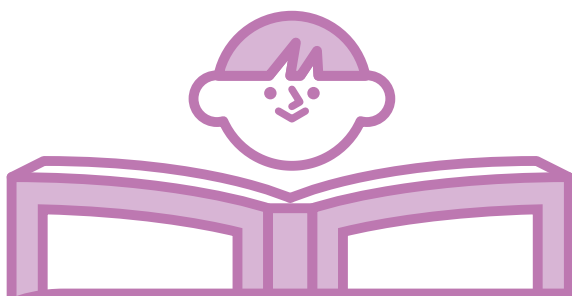
랍스터 이름을 왜 저한테 질문하세요?

문해력(文解力)은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문맹이 아예 글을 모르는 것이라면 문해력은 글을 아는데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유네스코(UNESCO)는 문해력을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창작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모든 학습과 사고의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문해력은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감을 키워주고,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문해력의 핵심은 글뿐만 아니라 세상의 맥락을 읽어내는 데에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장에서는 도대체 문해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해력 상태는 어떤지, 문해력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우리의 ‘읽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담았습니다. 읽기는 문해력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다독과 정독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책을 읽을 때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등 독서의 실전 팁들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3장은 쓰기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쓰기는 초등학교 때 독후감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서, 논술, 편지, 제안서 등 평생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글을 쓰는 방법, 글쓰기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부터 글감을 찾는 방법 등 꼭 필요한 글쓰기의 전략들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문해력을 완성시킬 수 있는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일반적인 소통에서 관계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경청, 독서 모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독선에 빠지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사춘기를 위한 문해력 수업》 청소년 독서 지도안을 직접 채워가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문해력을 향상시켜 보세요!



1차시

문해력 vs 무뇌력, 그것이 문제로다

2차시

읽기, 나만의 매력을 만들기 위하여

3차시

쓰기, 글잘러가 되면 행복하다고?

4차시

잘 듣고 잘 말하기, 인사의 모든 비결

1차시

문해력 VS 무뇌력, 그것이 문제로다



★ 1장을 읽기 전에 체크체크!

모든 학습은 메타인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고 있나요?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계획 도중에도 계획을 수정하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에 앞서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인식해서 효과적인 독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의 표를 읽고 독서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망설이지 말고 모두 체크해보세요.

	체크	독서의 어려운 점	효과적인 독서 전략
1		독서 전에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뿐이고 독서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독서에 대한 습관이 정리되지 않아서이다. 언제 어느 때에 독서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책만 펴면 졸립다.	고른 책이 문제다.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읽을 책 리스트를 정리해보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수준의 책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한다.)
3		글이 길면 어려워서 책을 읽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짧은 단편 위주로 책을 읽으며 완독하는 성공 경험을 쌓는다. (필독도서에서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4		독서를 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독서가 왜 필요한지 진단이 필요하다.
5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6		한 권을 읽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래 걸려도 괜찮다. 중요한 건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는 것이다.
7		읽는 속도는 빠르지만, 다 읽고 난 후에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메모 독서법 4영역*에 대해 독서 노트를 작성한다.
8		책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다.	쉬운 책을 매일 20분 정도 읽을 수 있도록 강제로 계획한다.
9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좌절할 필요 없다. 누구나 그렇다. (적자생존! 독서 노트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10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독서 동기가 부족하다. 동기를 붙여넣어줄 수 있는 책**을 읽어본다.

● 메모 독서법 4영역: 날짜, 도서명(저자명), 필사하고 싶은 부분, 필사하고 싶은 이유.

●● 《나는 공부 대신 논어를 읽었다》(김범주), 《책 잘 읽는 방법》(김봉진), 《타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동진 독서법》(이동진) 등.

나의 독서 문제점이 눈에 보이나요? 체크해본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나만의 효과적인 독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짐하는 글을 써보세요. 형식은 자유입니다. 쓴 글을 바탕으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세요. 개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독서 전략을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1. 다음의 말들을 읽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적어보세요.

흔히 쓰는 말	내가 알고 있는 의미
너 되게 고지식하다	
너 정말 이지적인데?	
작자 미상	
존귀하다	
구직 활동	
성함	

2. “오늘이 8월 31일이잖아! 우리 사흘 후에 에버랜드 가는 거 어때?”라는 대화를 통해 이 둘은 언제 에버랜드에 함께 가게 될지 예측해보세요.

① 9월 3일

② 9월 4일

③ 9월 5일

④ 9월 6일

3. 실질적 문맹이 무엇일까요? 그 말에 동의하나요?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에 실질적 문맹의 예를 본 적이 있다면 함께 적어보세요!)

4.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진짜 정보보다 가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갈수록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는 늘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실된 정보를 찾아 활용해야만 해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글을 어디까지 믿나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2차시

읽기, 나만의 매력을
만들기 위하여



★ 2장을 읽기 전에 체크체크!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문해력이 높아질까요? 어려운 책을 붙들고 있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 있지 않나요? 효과적인 독서는 자신의 읽기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능력에 맞는 독서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읽기 방법 가운데 언급되는 두 가지가 바로 정독(精讀)과 다독(多讀)인데요, 아래의 표에 나온 내용을 읽고 체크하면서 나는 숙련된 독서가인지, 숙련되지 않은 독서가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독서가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세요.

	문항	체크
1	어떤 책이든 상관없이 책을 읽는 것이 즐겁다.	
2	책을 읽으면서 인용된 문구를 보면 인용된 그 책을 읽고 싶어진다.	
3	소설을 읽을 때 글의 시대적 배경이나 맥락을 살피게 된다.	
4	남들이 읽기 어렵다는 책(벽돌책)에 관심이 생긴다.	
5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독서를 한다.	
6	베스트셀러(잘 팔리는 책)보다는 스테디셀러(꾸준히 팔리는 책)가 좋다.	

▶항목이 3개 이하로 체크가 되었다면 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독을 통해 다양한 책을 읽고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만약, 항목을 4개 이상 체크했다면 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상태이니 한 책을 꼼꼼히 읽는 정독을 추천합니다.

1. 다음의 단어들을 읽고 어떤 의미인지 아는 대로 적어보세요.

흔히 쓰는 말	단어의 의미
대관절	
을씨년스럽다	
시나브로	
개편하다	
오금	
샌님	
미답다	

2. 하단의 신문 기사를 읽고 핵심 문장을 찾아 줄을 긋고,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해보세요.

16년 만에 돌아온 빵, 줄 서서 산다... '띠부씰' 때문에

돌아온 '띠부씰'의 열풍이 거세다. 띠부씰은 '떼었다 붙였다'의 줄임말에 편지봉투 등에 붙이는 '씰(seal)'을 합성한 말이다. 빵을 사면 함께 주는 스티커를 일컫는다. 16년 만에 다시 나온 '띠부씰'이 다시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에서는 때 아닌 '오픈런(매장이 열리자마자 뛰어 들어가 구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요약 →

띠부씰 문화의 중심에는 '포켓몬빵'이 있다. 포켓몬빵은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다양한 캐릭터를 소재로 만든 빵으로 SPC삼립이 1998년 출시했었던 제품. 이후 큰 인기를 누리다가 2006년 이후 생산이 멈췄고, 이번에 16년 만에 재출시됐다.

요약 →

포켓몬빵은 지난 3일 출시 일주일 만에 150만 개 판매를 돌파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는 SPC삼립이 내놓는 다른 신제품의 평균 판매량보다 6배 이상 많다. 지난 15일엔 판매 470만 개를 넘겼다.

요약 →

20년 전 인기를 끌던 포켓몬빵이 다시 화제의 중심이 된 건 이 빵이 유행했던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학생이었던 이들이 지금 20~30대가 돼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빵을 사기 시작해서다. 학창 시절 빵 봉지마다 들어 있는 스티커를 책받침, 교통카드 등에 붙여가며 모았던 이들은 20~30대 성인이 되서도 빵보다는 빵 봉지 안에 든 스티커를 수집하기 위해 빵을 사들이고 있다.

요약 →

띠부씰 문화가 다시 유행하면서 1990년대 말을 배경으로 드라마에서 나온 또 다른 빵도 같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에서 여자 주인공 '나희도'가 빵을 먹다가 띠부씰을 수집하는 모습이 방송되자, 이 드라마에 등장한 빵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자체 브랜드(PB) 브레다움에서 내놓은 빵으로, 드라마의 영향으로 '희도빵'이라는 애칭이 붙었다. 해당 제품은 드라마에 노출된 뒤 1주일간(이달 7~13일) 매출이 전주 대비 세 배가량 늘어났고, 제품 3종은 세븐일레븐 전체 빵 매출 순위에서도 포켓몬빵에 이어 2~4위를 차지했다.

요약 →

갑작스런 인기를 누리면서 일부 편의점에서는 소비자들이 포켓몬빵이 입고되는 시간에 몰려드는 ‘오픈런’ 현상도 나타났다. 밀려드는 손님 때문에 ‘조기품절’이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편의점도 곳곳에 눈에 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리셀’도 된다. 빵 스티커 중 인기 캐릭터나 구하기 어려운 캐릭터의 스티커만 따로 2만~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띠부띠부씰이 든 빵이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MZ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요약 →

출처: 《조선일보》 2022년 3월 21일자

3. 요약한 문단을 바탕으로 매끄럽게 문장을 이어 전체 신문 기사를 요약하는 글을 써보세요.

.....

.....

.....

.....

.....

.....

.....

.....

.....

.....

.....

.....

.....

.....



4. 청소년 소설 《홀홀》을 읽고 요약하기, 질문하기, 내용 예측하기, 공감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세요.

① 요약하기(줄거리)

예시)

주인공인 고2 소녀 서유리는 입양아다. 하지만 자신을 입양한 엄마 서정희가 아닌 서정희 씨의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정희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서정희 씨가 낳은 9살 연우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된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과거를 끊어내고 싶었고 할아버지와도 거리를 두며 마음을 주지 않고 동거인처럼 지냈다. 하지만 연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에 변화가 생긴다. 대학생이 되어 홀홀 떠나 독립해 살겠다는 유리의 목표는 조금씩 무너지고 만다. 서로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내밀한 아픔을 이야기한다. 유리뿐 아니라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다. 세윤이, 담임 선생님, 할아버지, 그리고 연우.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은 각각 다른 것 같더라. 감당해낼 여건도 다르고. 설령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거야.” (중략) “살아온 길이 저마다 다르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잖니.”

아픔으로부터 홀홀 떠나고 싶던 유리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독립을 외치던 유리가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연결되면서 아픔을 홀홀 털어버리게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한두 명의 좋은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외롭지 않고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메시지가 희망적이었다. 가깝지만 사실 가장 곁을 내주지 않던 서로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는 모습이 따뜻했다.

② 질문하기

제목이나 카피, 표지 그림을 통해 책을 읽기 전에 질문 던지기!

제목 '홀홀'은 어떤 의미일까?	카피 “과거를 싹둑 끊어내면, 나의 내일은 가뻔할 텐데.” 결말을 통해 이 카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표지 표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내용을 예측해보자.

③ 내용 예측하기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뒤에 이어질 내용이나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상상하며 읽기!
 (빈칸에는 예측 질문들을 만들어보세요! 답이 없으니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예측 질문	질문에 대한 답
예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상처와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다. 작품에 나오는 유리나 세윤이와 같은 입양아들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일관해야 상처받지 않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예시) 버거운 덴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마음이 가뻔해지는 법은 어찌면 단 하나라는 말이 나온다. 유리와 연우, 그리고 할아버지와 친구들과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가뻔해지는 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예측 질문	질문에 대한 답
<p>이 작품에는 재미있고 짝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온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누구일까?</p>	

④ '좋아요' 공감 버튼 찾기

책의 내용 가운데 공감되는 구절을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빈칸에는 공감되는 구절을 써봅니다! 공감한 부분,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함께 써보세요!)

페이지	구절	공감한 부분(공감하지 않는 부분)
<p>예시) 20쪽</p>	<p>감추는 일은 반복할 때마다 익숙해졌다. 어느 지점에서 입술을 얇게 다물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시선을 돌리거나 화제를 바꿔야 할지 자연스레 터득했다. 문제는 알 수 없는 수치심이었다. 내 처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배신감 같은 감정이 일렁일 때면 항상 수치심도 함께 움찔거렸다.</p>	<p>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입양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안타까웠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자라면서 느꼈을 외로움, 억울함, 수치심이 느껴져서 어린 마음속에 얼마나 서러움이 남았을지 괜히 내가 대신 미안해졌다.</p>
<p>예시) 254쪽</p>	<p>모든 고통은 사적이지만 세상이 알아야 하는 고통도 있다. 무엇으로 아프고 힘든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야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지기 마련이다.</p>	<p>이 문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나의 일상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꼭 큰일이 아니더라도 주위의 친구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알게 되었을 때 당장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p>

3차시

쓰기, 글꼴러가 되면
행복하다고?



1. 관용적 표현(慣用的 表現)은 이야기의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기억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문체적 장치입니다. 해학과 풍자의 중요한 기법이 되기도 해서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글의 내용과 수준을 레벨업 시킬 수 있지요. 관용어(속담, 격언, 명언)의 예를 3가지 이상 찾아보고 그 의미를 서술해보세요.

	관용적 표현	그 의미	문장의 예
예	코가 납작해지다.	무안이나 창피를 당해 기가 꺾이다.	친구에게 게임에서 진 뒤로 코가 납작해졌다.
	귀가 따갑다.	자주 들어서 듣기가 싫다.	엄마의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오늘도 귀가 따갑게 들었다.
	발등을 짝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다.	친구에게 발등을 짝혔어.
1			
2			
3			

2. 아래의 표 '독서 노트에 쓰면 좋은 일곱 가지'를 참고하여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만의 (미니) 필사 노트 만들기 연습을 해보세요. (필사 노트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장을 필사하고, 필사한 문장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독서 노트에 쓰면 좋은 7가지

- ① 독서 노트를 쓴 날짜, 책 제목, 저자.
- ② 중요 문장(필사): 이때 페이지 번호도 적기.
- ③ 필사한 문장에 대한 내 생각: 자기가 그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쓴다.

- ④ 책을 읽으며 떠오른 질문: 적어두지 않으면 금세 사라진다.
- ⑤ 책의 핵심 내용 요약 정리.
- ⑥ 책을 읽고 깨달은 것, 얻은 것: 책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적기.
- ⑦ 실천 항목: 책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적어보기.

연번	항목	② 중요 문장(필사): 이때 페이지 번호도 적기. ③ 필사한 문장에 대한 내 생각 : 자기가 그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쓴다.
예시) 《보통의 노을》 중에서	②	“나는 네가 말하는 평범함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지 않냐?” (107쪽)
	③	▶ 평범한 것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평범하게 살고 있는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책의 인물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면 평범함이 참으로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2	②	
	③	
3	②	
	③	

4차시

잘 듣고 잘 말하기,
인사의 모든 비결



1. 중간고사가 끝난 후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한다고 가정해보고 독서 모임 계획을 세워봅시다. 독서 모임 멤버(2명 이상)를 정하고 어떤 주제(책)로, 어떤 방식(발제 방식, 토론 방식 등)으로 독서 모임을 하면 좋을지 구상해보세요.

독서 모임 만들기	구체적인 사항
장소 및 시간	
멤버	
주제 (평소에 토론해보고 싶었던 책)	
발제 방식 (각자 발제 or 한 사람이 발제)	
토론 방식 (자유 토론, 발표 형식 등)	

2. 독서 모임에 대해 계획을 해보았다면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할 질문에 대해 고민해봐야겠죠? 최근에 읽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발제문을 만들어볼 차례입니다. 발제문은 논제를 정리한 글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글이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자유롭게 기록해도 되지만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래의 표에는 한 책에 대한 발제문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작성해보세요!

책 제목	발제문 예시
《앵무새 죽이기》	1. 현대 사회에서 남녀 차별과 같이 눈에 보이는 차별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빈부의 차이, 학력이나 계층의 차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요즘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차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2. 작품 속 등장인물 중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는 누구였으며, 그 이유는?

책 제목	발제문 예시
	<p>3. '스카웃'의 고모는 스카웃에게 여성스럽고, 필치 가문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요구한다. 반면 아버지는 스카웃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기른다. 자신의 자아정체성은 자기 본연의 것일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길러지는 것일까?</p> <p>4. '애틀커스 핀치'의 자녀교육관과 교육 방법이 인상 깊었다. 핀치의 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말은? 핀치의 교육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p>